

지역 현안 해결 국가예산 확보 총력 ‘학천지구 통합개발 사업’ 의견 청취

전춘성 진안군수, 안호영 국회의원 만나 지원 요청

진안군은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 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지난 10일 안호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예산을 요청했다.

전 군수는 안호영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용담호 하천관리지구 변경(용담호 예곡가든 조성사업, 진안·주천 파크골프장) △진안군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해제) 확대 △신광재 산악관광 활성화 등 진안군 역점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전춘성 군수는 “앞으로도 국회, 중앙



전춘성 군수는 지난 10일 안호영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예산을 요청했다.

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 함께 행복한 생애

/진안=우태만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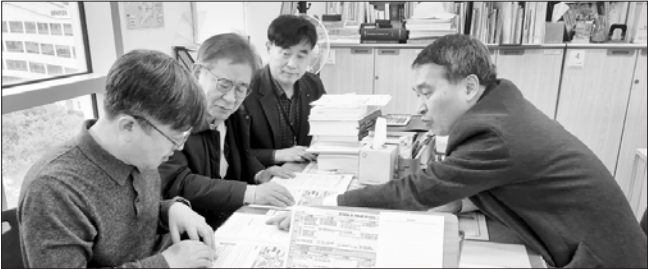
최정일 무주부군수, 국토교통부 등 찾아 지원 건의

지난 5일 국가 예산 확보 전략회의에 이어 중앙부처 문을 두드리는 등 국비 확보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는 무주군의 행보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군비 부담이 없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우선 주력할 방침으로, 무주군청 최정일 부군수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들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을 차례로 방문해 철도와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사업의 국가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최정일 부군수는 국토교통부 우정훈 철도정책과장과 강태석 도로정책과장, 이윤우 도로시설안전과장 등 중앙부처 부서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안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무주를 통과하는 전주~김천(L=101.9km), 대전~남해(L=203.35km) 철도 건설 사업 추진이 관광수요 창출과 이동 수단 다양화를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 '35.)에 반영이 돼야 한다는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무주군 최정일 부군수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들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을 차례로 방문해 철도와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사업의 국가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또, 전주~무주~대구 등 동서 3축 연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주~무주 간 고속도로(L=42km) 건설 계획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6.~ '30.) 신규사업으로 포함돼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종횡단 선형 불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국도 19호선 안성~적상 4차로 확장 사업(L=4km, B=20m) 역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 '30.)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창현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장, 진안군의회 내방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는 11일 진안군 산림치유 확대를 위해 김창현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장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 원장 방문은 산림치유원 활성화 방안과 지역 산림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산림치유를 활용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확장과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창욱 의장은 “진안고원치유원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핵심적 산림복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의회에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림치유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은 해발 650m 이상의 청정 고원 지역에 있는 국내 대표 산림치유 시설로,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진안읍 기관사회단체장회의의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진안군은 군 랜드마크로 키워나갈 학천지구 통합개발 사업에 대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진행 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오는 12일 진안읍 기관사회단체장회의를 시작으로 학천지구와 인접한 마을 주민, 시설별 이해관계자와 수혜자를 대상으로 우선 설명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학천지구 통합개발 사업은 학천지구(진안읍 군상리 481번지 일원)에 진안지혜의 숲 도서관, 진안문화예술회관, 온가족 다음마루, 복합플랫폼(광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진안군에서는 학천지구를 구도심(읍소재지, 진안고원시장)과 신도심(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연결하는 완충지로 여겨 넓은 광장과 문화예술공간을 갖춰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97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2,500제곱미터 규모로 보전서고, 일터·어린이 자료실, 열람실, 사무실, 전망스카이라인 등의 기능을 갖춰 지역 거점 도서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진안문화예술회관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131

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3,500제곱미터 규모로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공연장, 사무실 등의 기능을 갖춰 우리 군에 부족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온가족 다음마루는 진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1,270제곱미터 규모로 온가족여가 학습실, 건강나눔실, 체력단련실 등의 기능을 갖춰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과 이벤트 활용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복합플랫폼 조성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171억 원을 투입하여, 필로티 공법으로 공영주차장 180면과 복합문화광장 5,140제곱미터를 조성하여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읍소재지 내 주민 소통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학천지구 통합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과 반·어린이 자료실, 열람실, 사무실, 전망스카이라인 등의 기능을 갖춰 지역 거점 도서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진안문화예술회관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131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더 특별한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 선정

장수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더 특별한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전북개발공사 160억 원, 도비 8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20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반할 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반값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해주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인구 유출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다. 최초 입주 때 임대료 절반만 내고 아이를 낳으면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주고 10년 임대 후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으로 전환해주는 사업이다.

장수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사업비 320억원을 들여 오는 2028년까지 장수를 노하리 일원에 반할주택 100호를 조성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민들은 기존 주택시장보다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양질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성과는 군이 지역 주민들의 주거복지와 인구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북개발공사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



반할주택 예상 조감도

한 결과로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터전을 제공할 전망이다.

특히 반할주택은 단순히 주거비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안정성 증대, 주거환경 개선,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반할주택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 전북개발공사와 긴밀하게 협력해 주거복지를 더욱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장수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마을만들기 사업 본격 추진

진안군은 2025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군은 지난해 2025년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설명회 를 개최했으며 참여 마을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올해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2025년 마을만들기 사업에는 1단계인 그린빌리지 사업에 시작으로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며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32개소의 마을이 참여한다.

각 마을은 주민 의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공동체 및 생활 기반 시설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진안군은 점진적인 마을 발전을 위한 단계별 사업비를 투입해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며, 특히 4단계인 자율 개발 사업에는 주민 주도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마을 개발을 위해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한다.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또한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해 상시 현장 모니터링과 역량 강화 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을 운영하며 사업참여 마을에 힘을 실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애양교육진흥재단 정기총회 개최

(재)장수군애양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은 11일 장수군 귀농귀촌센터 교육장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 를 개최해 인제육성기준을 개정하고 청소년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인제육성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대학생 주거비지원 장학금 확대로 지급 기준을 기존 2~4학년에서 1학년까지 확대한 것으로 대학 신입생 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체육과 등 실용예체능 분야 상시 특강 개설 △오뎅인재육성사업 인터넷강의 지원 기간 연장(차기년도 2월까지) △지역아동센터 소속 고등학생 대상 맞춤형 특강 신설 등 청소년교육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방안들도 승인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